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7월 13일(월) 10:00 이후

담 당 : 조사연구팀 신지훈 주임
(990-7094)

2026년 3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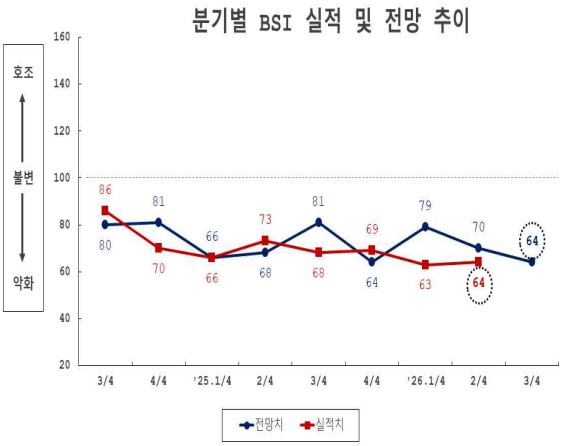
중동발 리스크에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2개 분기 연속 '뒷걸음'

▶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64', 원자재 수급 차질,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리스크 영향
▶ 전기·전자(154), 조선·기자재(119) 호조, 신발(20), 의복(27) 부진… 업종 양극화 심화
▶ 지역기업 67.8%, 중동사태 여파로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변경 불가피

부산지역 제조업의 올해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에 이어 또다시 하락하며 2개 분기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고환율·고물가 등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지역 제조업이 체감하는 경기가 악화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3일(월), 지역 제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3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3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64'로 전분기(70) 대비 6p 하락하며 2개 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중동발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고환율 등 경기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산 제조업의 특성상 고환율이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수출기업은 '80'으로 전분기(64) 대비 16p 상승했는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대금 증가와

전기·전자, 조선·기자재 업종의 수주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내수기업은 '61'로 전분기(71) 대비 10p 하락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등 중동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부문별로는 매출(66), 영업이익(63)이 각각 전분기 대비 5p, 6p 하락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수익성 악화를 야기한 데다, 해상운임 지표인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가 중동전쟁 직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하면서 물류비 부담까지 가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64)와 자금사정(62) 역시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매출 감소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업종 간 경기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전기·전자(154)는 AI·반도체 관련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며 기준치(100)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 조선·기자재(119) 역시 노후 선박 교체 수요에 따른 선박 건조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LNG·암모니아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 확대에 힘입어 호황을 이어갔다. 반면 화학·고무(35)는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료 조달 비용 증가와 수급 차질이 겹치며 이중고에 직면했고, 신발제품(20), 의복·모피(27), 섬유제품(40) 등 경공업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매입 단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신발제품은 합성피혁·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기반 원자재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전 업종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동발 리스크 여파로 지역기업 과반 이상이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경영계획 변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동 있음'이라고 답한 기업이 67.8%로 '변동 없음'(32.2%)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구체적인 변동 사항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이 30.1%로 가장 많았고, '가격·납품단가 인상'(25.5%), '원부자재 재고 확대 및 선매입'(17.8%), '생산량·가동률 조정'(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7.4%), '운송경로 변경'(3.1%), '대체 수출처 발굴'(0.8%) 등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대응책인 만큼 응답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중동발 리스크와 고환율·고물가 등 개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지역 제조업 체감경기가 2개 분기 연속 위축됐다"면서, "전기·전자와 조선·기자재 등 일부 업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화학·고무와 경공업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원자재 수급 안정과 환율·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 부 : 동 조사결과 1부. 끝.

2026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 조사개요 >

1. 조사명

- 2026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

2. 조사목적

-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
-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

3. 조사대상

-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사(※유효 응답 업체 255개사)

4. 조사방법

-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5. 조사내용

- 전반적인 체감 경기
- 매출,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
- 주요 업종별 전망

6. 주의사항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7. 기업경기전망지수(BSI)의 의미

$$BSI = \frac{\text{호전(증가)표시업체수} - \text{악화(감소)표시업체수}}{\text{총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1 2026년 3/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64'로 전분기(70) 대비 6p 하락,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차질과 고환율,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악화 전망**

❍ 2026년 3/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64

-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70) 대비 6p 하락하였으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 고환율 등 경기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준값(100)을 크게 하회
- 특히, 원자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산 제조업의 경우, 고환율이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이처럼 개별 기업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내외 리스크 지속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과 수급 차질이 맞물리면서 경기전망 2개 분기 연속 하락

❍ 형태별 BSI는 [1]수출기업 '80', [2]내수기업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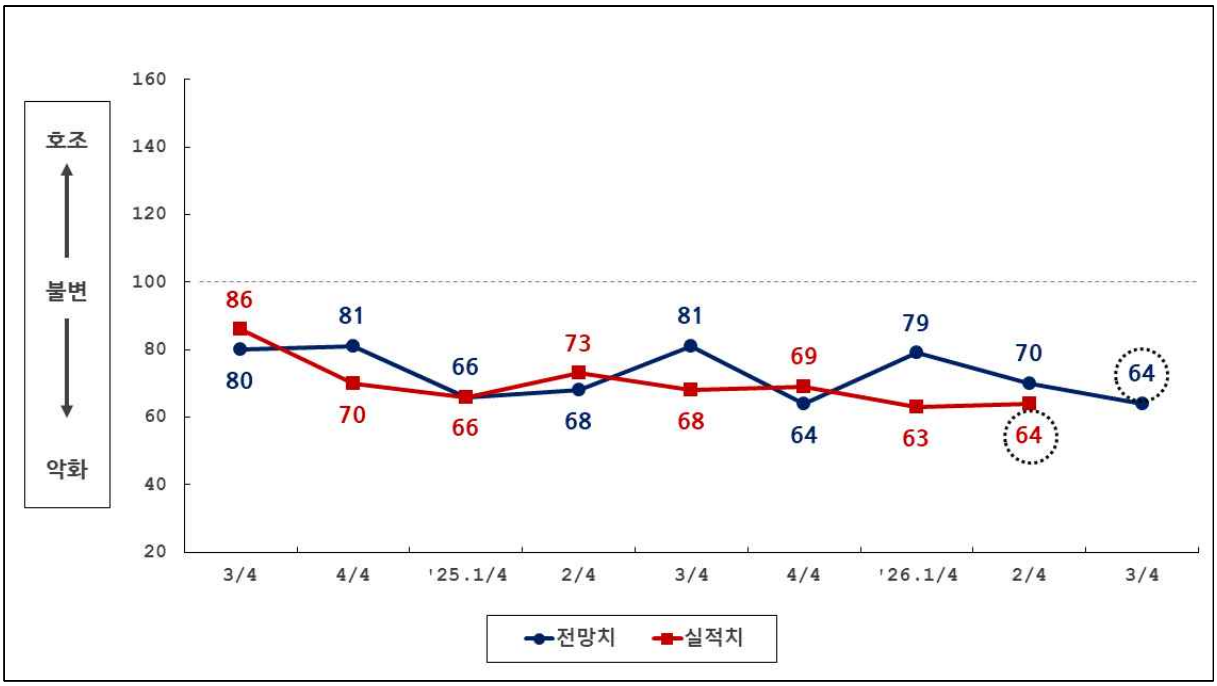
- 수출기업은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대금증가와 전기·전자 및 조선·기자재 업종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64) 대비 16p 상승
- 내수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 소비위축 등 중동전쟁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해 전분기(71) 대비 10p 하락

❍ 2026년 2/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64'

- 중동전쟁 장기화, 고환율, 소비둔화 등으로 경기실적지수는 전분기(63) 수준

1)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2)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미만을 차지하는 기업

<최근 2년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



❍ 2026년 3/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 전분기 대비 제조업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 제조업체가 140개사(54.9%)로 최다
- 이어서 3/4분기 경기불변 전망 업체는 66개사(25.9%), 경기호전 전망 업체 49개사(19.2%) 순으로 집계

< 2026년 3/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

(단위: 개사, %)

구분	호전	불변	악화	계
응답업체 수	49	66	140	255
구성비	19.2	25.9	54.9	100.0

2 경영 부문별 전망

■ **중동사태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2026년 3/4분기 지역 제조업 매출(66) 및 영업이익(63)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5p, 6p 하락**

❍ 매출(66), 영업이익(63)

-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수급 차질 등이 수익성 악화를 야기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하락 전망
- 또한, 해양운임 지표인 3)SCFI가 중동전쟁 직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하며 물류비용 부담 가중

❍ 설비투자(64), 자금사정(62)

- 설비투자와 자금사정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매출 감소로 인해 부진 전망

< 부문별 BSI 변화 >

구분	실적			전망		
	'26.1/4분기		'26.2/4분기	'26.2/4분기		'26.3/4분기
체감경기	63	→	64	70	→	64
매출액	63	→	66	71	→	66
영업이익	63	→	65	69	→	63
설비투자	63	→	67	68	→	64
자금사정	63	→	65	69	→	62

3)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3 주요 업종별 전망

■ **중동전쟁, 환율 변동 등 대외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화학·고무 및 화학원료 기반 제품 제조업 등에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 이에 반해 전기·전자, 조선·기자재의 경우 업황 호조로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

❍ **화학 · 고무(35)**

- 고유가·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며 원료 조달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원료 수급 차질까지 겹치며 이중고 직면
- 또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3분기 경기 부정적 전망

❍ **섬유제품(40), 의복·모피(27), 신발제품(20)**

- 화학섬유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 불안 및 매입 단가 상승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며 업황 부진 전망
- 원자재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 우려
- 신발제품 제조업의 경우, 합성피혁, 합성고무 등 주요 원자재가 석유화학 기반 제품이라 유가상승이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 산업 중 3분기 전망치 최저 수준 기록

❍ **전기 · 전자(154)**

- AI·반도체 관련 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황이 호전되며 경기개선 전망.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따라 관련 부품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100)를 큰 폭으로 상회

❍ **조선 · 기자재(119)**

- 노후 선박 교체 수요에 의한 선박건조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LNG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 확대 등의 영향으로 조선업 호황 지속
- 조선업 호황에 따라 관련 기자재 수주가 동반 증가하며 3분기 조선·기자재 경기 호전 전망

< 주요 업종별 BSI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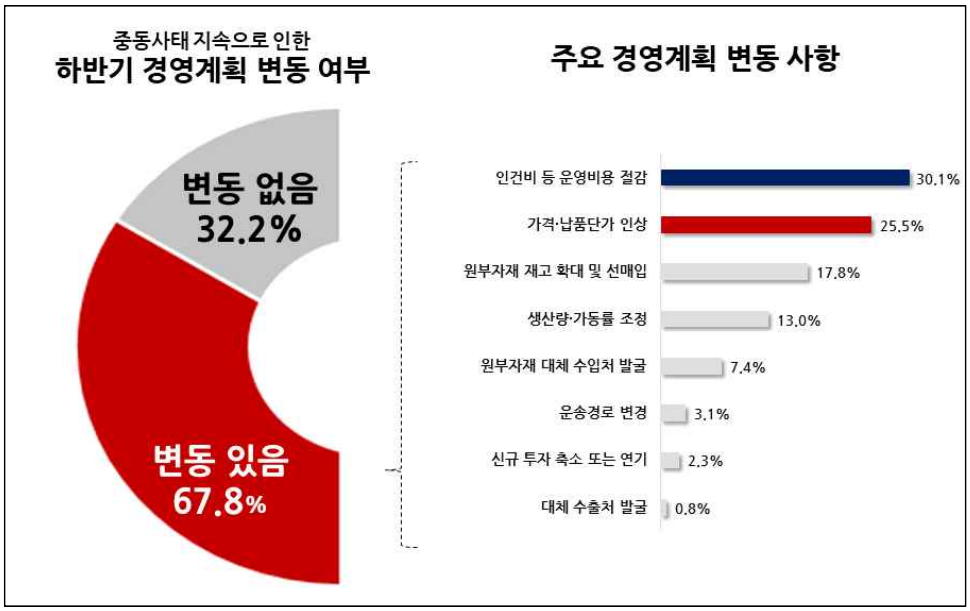
구분	실적			전망		
	'26.1/4분기		'26.2/4분기	'26.2/4분기		'26.3/4분기
음·식료품	80	→	47	93	→	107
섬유제품	30	→	40	57	→	40
의복·모피	42	→	40	50	→	27
신발제품	50	→	60	50	→	20
화학·고무	74	→	65	70	→	35
1차금속	52	→	72	72	→	72
조립금속	54	→	39	63	→	30
전기·전자	55	→	115	64	→	154
기계·장비	77	→	35	80	→	38
자동차·부품	93	→	86	83	→	89
조선·기자재	77	→	97	83	→	119

4 중동사태 지속에 따른 하반기 경영계획 변동 현황

❍ **중동사태 장기화 여파로 지역기업 과반 이상이 하반기 경영·운영 계획 변동 불가피**

- 중동사태 지속으로 인한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변동 여부에 대해 지역기업은 '변동 있음'(67.8%), '변동 없음'(32.2%)로 응답해 경영계획 변동기업이 약 2배에 달함

❍ **구체적 변동 사항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이 3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이어서 '가격·납품단가 인상'(25.5%), '원부자재 재고 확대 및 선매입'(17.8%), '생산량·가동률 조정'(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7.4%), '운송경로 변경'(3.1%), '대체 수출처 발굴'(0.8%) 등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변경하기 어려운 대응책이기 때문

< 중동사태 지속으로 인한 하반기 경영계획 변동 여부 및 주요 변동사항 >